

김문현 박사의 “요한복음의 인물연구역사와 방법론 고찰”에 대한 논찬

김광모 교수(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본 논찬자는, 김문현 박사¹⁾의 옥고인 “요한복음의 인물연구역사와 방법론 고찰”을 요약하면서 논지와 논리적 전개를 살핀 후 논평하겠다.

요약

김박사의 “요한복음의 인물연구역사와 방법론 고찰”은 다음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들어가는 말; 2. 인물연구의 역사; 3. 성격묘사(Characterization)와 구성전개(plot)와의 관계; 4. 평면적인(Flat) 인물과 조연(Minor) 인물의 특징적인 면; 5. 서사-역사적으로 읽기. 먼저 각 부분을 요약해 보겠다.

1. 들어가는 말

요한복음에 기술된 인물, 특히 치유사건에 나타난 인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는 김문현 박사는, 요한복음의 인물연구가 주로 예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소개하고, 기독교론과 구속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예수와, 저술 당시 청중들이 경험하는 이슈나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다른 인물의 상호관계도 다뤄야 한다고 문제제기한다. 이것은 인물성격(characterization)과 줄거리구성(plot)에 대한 상호관계성으로 분석 가능하다. 연구목적은 요한복음의 인물연구사와 인물분석 방법론을 고찰하여, 그것의 한계와 새로운 연구방향을 가늠하는 일이다.

2. 인물연구의 역사

김박사는 요한복음 인물연구 역사를 개관한다. 인물에 대한 서사적 연구 이전, 모울(C. F. D. Moule, 1962)은 요한복음의 개인들이 복음과 종말론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고 주장했다. 콜린즈(R. F. Collins, 1976)는 초대교회 때 요한복음의 인물들이 상징화로 인식되었으며(예., 오리게네스), 마리아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적 어머니로 간주되었다(예., 에브라렘, 암브로즈)고 했다. 이런 해석 유형이 중세 스콜라주의는 물론 현대 비평적 연구에서도 계속되었다고 예시한다. 볼트만은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콜린즈는 양식비평과 편집비평을 사용해서 요한복음의 인물들을 대표적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저자 자신의 설교 목적-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에 기여하게 했다고 말한다.

1) 김문현 박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B.A.), 미국 하딩대학교(M.Div, M.A.R.), 프린스턴신학대학원(Th.M.), 애빌린기독교대학교(D.Min.), 시카고신학대학원(Ph.D.)에서 수학했고, 대표적인 연구 논문과 저술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Healing Hurts: John's Portrayals of the Persons in Healing Episodes* (Seoul: KCU Press, 2005); 『가슴으로 읽는 요한복음』 (서울: 도서출판 영성네트워크, 2005); “A Surve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hn's Gospel and the Johannine Epistles,” 『그리스도대학교 교수논문집』, 4권 (2004); “왕의 신하 그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4:43-54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 신약학연구』, 4권 (2005년 11월): 126-53; “John's View of and the Jews,” 『그리스도대학교 교수논문집』, 5권 (2005);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보혜사(the Spirit-Paraclete) 연구,” 『그리스도대학교 교수논문집』, 6권 (2006); “니고데모, 그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3:1-21에 나타난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를 중심으로,” 『신약연구』, 6권 2호(2007년 9월): 285-323.

최근 컬페퍼(R. Allan Culpepper, 1983)는 현대 문학이론가인 포스터(E. M. Forster, 1927)의 통찰력 곧 등장인물이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통찰력에 기초하여, 요한복음의 개개 인물이 예수에 대한 일곱 가지 반응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비(W. J. Harvey, 1965)에 기초하여 평면적 인물과 원형적 인물 사이에 자리하는 중간인물(피셀즈), 곧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을 말했다.

그리고 김박사는 고대 문학적 묘사 관점에서 요한의 인물을 연구한 사례를 제시한다. 코에스터(Craig Koester, 1995)는 고대 문학적 묘사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등장인물이 예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상징적 유형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켈버(Werner H. Kelber, 1996)는 고대 수사학에 기대어 상호작용과 대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카이저(Robert Kysar, 1992)도 고대 수사학에 의거하여 영웅적 인물과 적대자(예., 유대인)의 필요성을 말했다.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가 있다. 스코트(Martin Scott, 1992)과 스티브(Mark W. G. Stibbe, 1993)는 니고 데모를 지식을 추구하는 인물로 분석했으며, 스탠리(Jeffrey Lloyd Staley, 1991)는 유대주의 시학 관점에서 지체장애인(5장)과 시각장애인(9장)을 어둠 속에서도 빛에 도달하려는 인물로서 토라를 초월한 예수에 대한 묘사에 일조한다고 말한다. 웨리바(Adeline Fehribach, 1998)는 상호작용 성격 묘사의 유형을 사용하여, 여성들을 메시아적 신랑인 예수의 신부로 분석한다. 피셀즈 역시 다른 인물들과 상호작용하여, 재창조주이신 예수의 다른 면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박사는 요한복음 인물묘사 연구를 정리한 후, 요한복음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성격묘사이론에 의거해서 줄거리를 구성하는 기능적 역할의 인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평면적 인물인지 혹은 원형적 인물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두 가지 논점을 고려하려면 이른바 평면적 인물과 조연인물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술한다.

3. 성격묘사(Characterization)와 구성전개(plot)와의 관계

김박사는 성격묘사가 최근에 관심 대상이 되었으며, 등장인물이 줄거리 인물로 읽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한 논제로 연구한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 따르는 문학비평가들은 등장인물을 플롯에 종속시키지만, 채트먼(Seymour Chatman, 1978)과 호크먼(Baruch Hochman, 1985)은 등장인물을 등장인물에 대한 열린 이론에 터하여 각각 자주적(자율적) 존재로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은 존재로 읽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줄거리 구성에 대한 성격묘사와 인물들에 대한 줄거리의 이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Henry James, Chatman, Frank Kermode, Hochman). 연구자는 등장인물과 줄거리가 문학의 거미집에 기본적 요소들로, 상호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한다.

등장인물에 대한 열린 이론에 따르면, 독자는 이야기 전체에서 누적된 인물묘사 정보들을 통합해서 등장인물을 평가한다. 그렇기에 실제인물과 등장인물 사이에는 긴장감과 박진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등장인물과 플롯에 대한 김박사의 상호적 입장은 이렇다; “요한복음의 인물들은 다른 인물들과,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의미의 조직체계에 대하여 그들이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4. 평면적인(Flat) 인물과 조연(Minor) 인물의 특징적인 면

김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포스터의 등장인물 이분법 곧 평면적 인물과 원형적 인물로 구분을 따르는 학자들이 있지만(콜린즈, 컬페퍼), 호크먼은 등장인물의 가변적 특성에 기초하여 이런 이분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갈레프(David Galef, 1993)는 ‘원형적’이 추상적 개념이기에 독자의 반응에 따라 등장인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한복음의 인물이 상징적 유형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국면과 성숙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면적 인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공 역할을 하기도 한다(예.,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인). 김박사는 갈레프와 콘웨이(Colleen M. Conway, 1999)의 입장에 기대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주적인 조연

인물과 그렇지 못하는 평면적 인물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런 입장에서 켄페퍼가 평면적 인물로 간주한 인물들을 조연인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서사-역사적으로 읽기

김박사는 요한복음의 성격묘사를 연구하는 서사비평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1세기 지중해 연안의 사회세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로드(David Rhoads, 1999)의 입장을 강조한다. 아이서(Wolfgang Iser, 1978)의 ‘본문 이외의 목록’과 다르(John A. Darr, 1992)의 ‘본문 밖’이 본문의 문학적이고도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²⁾ 내재적인 저자와 내재적인 독자가 이런 것을 사용하며 기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한다. 그 예로 치유기사에 나오는 조연인물들의 성격묘사를 제시한다. 그리고 현대 개인 심리 분석적 성격묘사 이론에 기초하여 고대문헌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비판한다. 김박사는 “서사-역사적인 독서는 요한의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의 조명 하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는 말로 연구를 마친다.

논평

김박사는, 요한복음의 인물연구가 주로 예수를 대상으로 기독교론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기독교론과 구속론과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와 다른 등장인물들과 관계 그리고 인물성격과 플롯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인물연구는 등장인물을 현대문학이론이나 고대문학이론에 기초하여 상징, 혹은 대표적 상징으로 이해하는 특성을 보이다, 최근에 예수와 다른 등장인물의 상호작용 성격묘사 유형(대립 혹은 호의)이 지배적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성격묘사에 대한 가장 적합한 이론은 열린 이론이어야 하며, 성격묘사와 구성전개는 종속적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포스터가 말한 평면적 인물 중 자주적인 조연인물로 구별할 것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격묘사 연구는 역사적 배경과 병행되는 서사-역사적으로 읽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 김박사의 논지와 그것의 논리적 전개를 논평하고자 한다. 첫째, 요한복음 인물연구가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다른 인물의 반응이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타당하다. 그러나 연구범위를 “요한복음의 인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물구성도 포함시켰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그 밖의 등장인물의 상호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인물구성 연구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³⁾

2) 예., 김문현, “왕의 신하, 그는 누구인가?,” 132-34는 τὸς βασιλικός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Ibid., 134는 문화인류학의 중요개념인 명예와 수치를, 그리고 Ibid., 151은 실존적 해방이라는 이념적 개념을 기술한다. 김문현, “니고데모, 그는 누구인가,” 288 각주 6은 요한복음 20:31의 “너희”에 주목하며, 독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독자가 처한 사회적인 위치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며, Ibid., 289는 ‘예루살렘’과 ‘유월절’의 상황을 설명하고, Ibid., 296-97, 300 각주 31은 ‘람비’가 존경의 개념을 함축한다는 이해를 소개하며,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사회적 지위의 차별성을 제거하고 평등한 입장을 취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3) 참고., Charles K. Barrett, “Christocentric or Theocentric: Observations on the Theological Method of the Fourth Gospel,” *Notion Biblique de Dieu*, 361-376 (Louvain: Louvain Univ Pr, 1976). R. Alan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Philadelphia: Fortress, 1983). 『요한복음 해부』, 권중선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179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에 의해 구성되고 있으며, 예수에 대한 인물구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물구성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고 기술하며, 또한 Ibid., 182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나타난 계시의 결과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진술한다. Marianne Meye Thompson, “God’s Voice You Have Never Heard, God’s Form You Have Never Seen: The Characterization of God in the Gospel of John,” *Semeia*, no 63 (1993): 177-204는 독자가 전체를 읽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을 어떻게 재구성하는 지에 주목하면서 등장인물의 텍스트 지시부호가 하나님에 대한 인물구성에 기여하는지 살핀다. Paul W. Meyer, “The Father: The Presentation of God in the Fourth Gospel,” in ed. R. A. Culpepper and C. C. Black, *Exploring the Gospel of John*, 255-73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 1996). Donald François Tolmie, “The Characterization of God in the Fourth Gosp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no 69 (Mar 1998): 57-75는 내포저자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부

둘째, 일반적 용어로 간주하고 전제했겠지만 논문주제에 직결되는 등장인물(character)과 인물구성(characterization)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그와 관련한 논제가 먼저 제시되었으면 한다. 프린스(Gerald Prince, 1987)의 정리에 의하면, ‘등장인물’은 “인간적인 특성이 부여되고, 인간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존재자(existent), 인간적인 속성을 가진 행위자(actor)”이며, ‘인물구성’은 등장인물의 특성을 직접 진술하거나 추리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등장인물의 구축에 관한 일련의 기법”이다.⁴⁾ 등장인물 및 인물구성에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이 있다. 1) 등장인물들이 본문을 초월한 “실재 인물들”인가(사실주의 견해), 아니면 텍스트와 플롯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말”인가(순수주의 견해)? 2) 등장인물과 플롯 중에 어떤 것이 “수위성”을 갖는가? 3) 등장인물은 열린 구성체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⁵⁾ 버넷(Fred W. Burnet, 1993)은 복음서의 등장인물 연구에서 다뤄야 할 문제에는 인물구성 이론 뿐 아니라 텍스트의 지표(textual indicator)와 독서 과정(reading process)도 포함해야 하는데, 인물구성은 개성(individuality)을 성취하는 연속체(continuum)이기 때문이라 말한다.⁶⁾

셋째, 김박사는 등장인물과 실재인물의 관계에 대해 순수주의 견해보다 사실주의 견해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예., 회당으로부터 출교). 그러나 리몬-케넨(Shlomith Rimmon-Kenan, 1983)은 프린스의 절충안, 곧 등장인물을 인간인 동시에 전체 구상물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등장인물은 텍스트 국면에서 언어 구상물의 결정적 역할을 하며 스토리 국면에서 비-언어적 추상물 내지 구조물이기에 인간적이다.⁷⁾ 툴란(Michael J. Toolan, 1988)도 등장인물이 개인성을 지니는 동시에 전형성을 드러낸다고 말한다.⁸⁾ 복음서에 잠시 등장하는 대부분의 등장인물은 중간적 존재, 곧 플롯에서 기능자이며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⁹⁾

넷째, 등장인물과 구성전개의 관계는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것으로서 상호의존적이라 한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서사물이 플롯 중심의 서사이냐, 혹은 인물중심의 서사이냐에 따라 그 관계는 상대적일 수 있으며, 위계관계는 독자가 관심을 집중하는 요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등장인물과 플롯이 상호의존적이라면, 그것들 간의 위계관계는 서사의 유형과 독자-비평의 초점에 의존한다는 점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¹⁰⁾

다섯째, 등장인물을 분류할 때, 등장인물의 “기능”을 토대로 미학적 유형, 설명적 유형, 그리고 모방적 유형 등으로 나누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런 기능이론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기질”을 중심으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그리고 중간에 해당하는 상투적 인물 등으로 나누는 입장도 있다.¹¹⁾ 그러나 기질 중심의 등장인물 분류는 심리적 서사에만 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서사의 종류에 따라, 등장인물을 복잡성, 발전, 내적 삶 등의 축을 중심으로 한 연속적인 점들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¹²⁾ 요한복음이 사실적 혹은 역사적 서사인 점을 인정한다면 그 타당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성을 인간에게 전달하는데, 이 일이 발생하려면 예수가 영화롭게 되어한다고 분석한다.

4) Gerald Prince, *A Dictionary of Narratolog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7. 『서사론 사전』, 이기우·김용재 역 (서울: 민지사, 1992), 39, 41.

5) 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교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5), 74.

6) Fred W. Burnet, “Characterization and Reader Construction of Characters in the Gospels,” *Semeia*, vol. 63 (1993), 3.

7) Shlomith Rimmon-Kenan,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New Accents-New York: Methuen, 1983. 『소설의 현대시학』 최상규 역 (서울: 예림기획, 1999), 63.

8) Michael J. Toolan, *Narrative: a Critical Linguistic Introduc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1988. 『서사론』, 김병욱·오연희 공역 (서울: 형설출판사, 1995), 134-35.

9) Outi Lehtipuu, “Characterization and Persuasion: The Rich Man and the Poor Man in Luke 16:19-31,” in *Characterization in the Gospels: Reconceiving Narrative Criticism*, eds. Rhoads, David and Kari Syreeni,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vol. 184 (1999), 76.

10) 참고., 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교론』, 77-82.

11) Tolmie, “The Characterization of God in the Fourth Gospel,” 60은 등장인물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모델에는 그라이마스의 모델, 포스터의 모델, 그리고 채트먼의 모델 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채트먼의 기질의 패러다임 모델을 택한다.

12) 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교론』, 95.

김박사는 컬페퍼가 포스터의 평면적 인물 분류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록하는데, 컬페퍼는 성서의 많은 등장인물들이 그 분류에 적용되지 않으며, 몇 명의 부수적 등장인물, 특히 사마리아 여성과 시각장애인은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등장인물을 분류하는 또 다른 구분, 곧 주인공, 중재하는 인물, 특히 조역과 배경인물 사이의 구분을 언급한다. 예수 외 대부분의 다른 등장인물들은 조역으로서 특수한 플롯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며, 종종 주인공을 드러내 주며, 많은 대표적 가치 또는 상징적 가치를 수반하기도 한다.¹³⁾ 컬페퍼는 조역으로 분류되는 부수적 인물들을 자세히 분석한다.¹⁴⁾ 또한 성서학자들은 포스터가 말하는 평면적 인물은 프라이(Northrop Frye)가 말한 관습적 인물에 기초하여 상투적 인물(stock character), 곧 원형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의 중간에 해당하는, 유형적 등장인물의 변형이라고 지적한다.¹⁵⁾

여섯째, 김박사는 컬페퍼를 포함해서 서사비평가들이 역사적 국면을 경시한다고 비판하면서 역사적 국면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컬페퍼는 서사 자체가 반영하는 ‘역동적 역사’와 텍스트 배후의 ‘재구성된 역사’를 구분 짓고, 오히려 전자의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서사적 성격이 이해된 다음에는 전통적인 역사적 쟁점들과 화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¹⁶⁾ 메렌라티(Petri Merenlahti)와 하콜라(Ramio Hakola)는 서사비평이 복음서 텍스트를 서사적 의미전달로 간주하는 서사적 모델에 관심을 두지만, 편집비평가들이 제기했던 역사적 물음들을 여전히 지속시킨다고 말한다.¹⁷⁾ 컬페퍼는 『요한복음 해부』의 “한국어 번역판 서문”(2000)에서, 서사비평이 사회과학적 해석과도 통합될 수 있고, 또 서사비평이 본래부터 서사적 설교와도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¹⁸⁾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김박사가 사용한 “서사-역사적으로 읽기”라는 용어보다, “사회-서사적 인물연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¹⁹⁾

마지막으로, 김박사의 연구가 내러티브의 층위들, 곧 의미 산출과 의미 수용의 서술층위, 서술양식의 텍스트층위, 플롯화된 스토리층위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지표들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한다. 서술자는 인물구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독자는 등장인물 지표들을 토대로 서술자의 이념을 파악하고 수용하면서 등장인물을 재구성한다. 연동되는 ‘스토리 층위-텍스트 층위-서술 층위’에서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지시체들을 중심으로 인물화 분석 방법론을 시도할 수 있는데, 지시체들은 논평, 묘사, 보고, 그리고 발화 등의 양식으로 서술된다. 스토리 층위에 존재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구조물인 등장인물이 서술자에 의해서 텍스트 층위에 제시됨으로 독자가 등장인물을 대할 수 있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의미전달 과정의 중심에 등장인물을 위치시켜서 분석할 수 있다.²⁰⁾

김문현 박사는 인물구성이라는 문학적 접근과 사회과학비평을 통합하여 인물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약학계 무대에 또 하나의 새로운 목소리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 Culpper, 『요한복음 해부』, 163-64.

14) Ibid., 211-31.

15) Lehtipuu, “Characterization and Persuasion,” 78.

16)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11.

17) Petri Merenlahti and Ramio Hakola, “Reconceiving Narrative Criticism,” *Characterization in the Gospels: Reconceiving Narrative Criticism*, eds. David Rhoads and Kari Syreeni,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84 (1999), 23.

18) Culpepper, “한국어 번역판 서문,” 『요한복음 해부』, 5.

19) 참고., David B. Gowler, “Hospitality and Characterization in Luke 11:37-54: A Socio-Narratological Approach,” *Semeia*, vol. 64 (1993): 213-51은 사회-서사적 접근을 통찰력을 문학비평가와 사회세계 지식을 인물구성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선정본문을 분석한다.

20) 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134-34; 참고., Tom Thatcher, “Jesus, Judas, and Peter: Character by Contrast in the Fourth Gospel,” *Bibliotheca Sacra*, vol. 153(1996): 435-48은 부쓰(W. C. Booth)의 개념인 말하기(telling)와 보여주기(showing)를 등장인물 지표로 삼아 설명한다.